

따뜻한 날씨 봄날 극장가, 로맨스로 물든다



봄날의 스크린이 로맨스로 물든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를 극장가도 눈치 챘다. 봄날에 어울릴 법한 로맨스 영화가 관객들과 연이어 만나고 있다. 특히 로맨스 장르에 일가견이 있는 일본과 대만의 작품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관객들을 겨냥한다. 현재 상영 중인 일본의 멜로 영화만 세 작품이다.

본 로맨스 특유의 잔잔한 감성을 건드리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만화 같은 오글거림을 장착한 작품도 있다. 관객은 그저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양자의 그녀'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배우들이 주인공을 맡았다. 아라시 마츠모토 준과 노다메 칸타빌레의 우에노 주리가 주연을 맡아온 듯한 일본 로맨스를 보여준다. 고마 모모코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철벽선생'은 연애 세포로 두뇌를 풀가동 중인 열여섯 소녀 사

일본·대만 작품들 각자 방법으로 관객들 겨냥

시작하게 된 고스케(마츠모토 준)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로 100만부 이상이 팔린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따뜻한 분위기로 감성을 건드리고 특유의 판타지까지 가미된 작품이다. 작년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 받았던 '아사코'도 한국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첫사랑과 같은 얼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아사코(카타 에리카) 앞에 강렬했던 첫사랑이 돌아오면서 모든 감정이 혼란스럽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단순한 로맨스라기 보단 스타일러도 보일 정도로 심리 묘사가 촘촘하다.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으면서 이미 1만 관객을 돌파했다. '철벽선생'은 만화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일본 로맨스를 보여준다. 고마 모모코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철벽선생'은 연애 세포로 두뇌를 풀가동 중인 열여섯 소녀 사

라(하마베 미나미)이 빈틈 없고 철벽인 히로미츠(타케우치 료마)를 사로잡기 위해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전형적인 순정만화 공식을 따르는 작품이며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로 유명한 츠키카와 쇼 감독과 하마베 미나미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다. 트와이스가 **여**를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본 로맨스는 4월에도 출격한다. '일본 김유정'으로 불리는 스기사키 하나가 출연하는 '우리들의 완벽한 세계'는 학교를 배경으로 청춘 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다다른 골목의 추억'은 한일 합작품이다. 일본 나고야를 배경으로 하며 한국의 최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소녀시대 출신 수영이 주연을 맡았다. 첫사랑과 화창시절, 로맨스 영화의 단골 소재다. 이 소재를 대만 영화들을 특유의 분위기를 결합시켜



대만표 로맨스를 만들어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나의 소녀시대' 등이 그 예다. 이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장난스런 키스'가 또 한번 대만 로맨스 열풍을 불고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난스런 키스'는 이미 일본과 대만은 물론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팬덤이 탄탄한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A반 남신 장화들을 특유의 분위기를 결합시켜

한 F반 위안상진(임윤)의 밀고도 용감한 작사(장) 일대기를 담은 로맨스다. 국내에서 대만 로맨스 열풍을 불고 온 '나의 소녀시대' 왕대륙과 프랭키 첸 감독의 재회로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왕대륙과 프랭키 첸 감독은 한국 팬들에게 응답하듯 개봉 시기를 맞춰 내한까지 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오는 27일 개봉한다.

'별밤' 전국투어 대장정 성공적 마무리



MBC 표준FM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하 별밤)가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국투어 야의 생방송 '1320km 프로젝트: 별밤로드 끝까지 간다'의 대장정을 마쳤다. '별밤'은 지난 17일 서울 상암동을 시작으로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춘천을 돌아 24일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번 전국 투어는 매일 밤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약 만 2천여 명의 청취자와 만나며 '별밤'의 남다른 존재감을 입증했다. 24일 상암 MBC 거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생방송에는 전국투어 첫날 게스트로 출연했던 윤미래, 타이거JK, 비지가 또 한 번 출연해 화려한 라이브 공연을 선사했다. 타이거JK는 "어린 시절 '별밤'은 내가 혼자 아니라는 걸 믿게 해준 방송이었다. 이번엔 라디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운 것 같다"며 DJ 산들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별밤'의 전설적인 별밤지기 이문세와 박경림 역시 이날 함께 하며 스튜디오를 추억으로 물들였다. 청취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별밤지기를 격하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쏟아냈고, 산들은 이문세를 위해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를 직접 열창하는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이문세 역시 오랜만에 직접 '별

밤'의 로고송을 부르며 "별밤'에는 내 인생이 녹아있다. 인생 대소사를 별밤'에서 함께 나눴기 때문이다. 청년시절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프로그램이었다. 그 때가 참 좋았고, 돌아갈 수 없어 그립다"고 말했다. 또 '별밤' 40주년 당시 별밤지기였던 박경림은 "50주년 게스트로 오게 되어 영광이다. 내가 별밤지기였을 때 산들을 방송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별밤지기가 된 걸 보니 장하다"며 "별밤'은 매일 밤 나누는 나의 친구였다. 앞으로도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9대 별밤지기 육주현 역시 스튜디오를 깜짝 방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문세와 함께 출연하고 싶어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다는 육주현은 "별밤'은 많은 상상력을 나누며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던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별밤'을 통해 위로받고 휴식하길 바란다"며 '별밤'의 50주년을 축하했다. 약 11년 동안 '별밤'을 지킨 최장수 DJ 이문세는 "후배 DJ들이 '별밤'을 그냥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하지 말고 종점에 왔다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별밤'을 사랑하면 어느새 100년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전하기도 했다.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매일 밤 10시 5분부터 자정까지 MBC 표준FM 96.9MHz와 MBC 라디오 2여플리케이션 미니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모두의 주방, 힐링 예능의 정석



자극적이지 않고 따뜻하다. 그렇다고 재미를 빼고 말하면 서운하다. 게다가 새롭다. 그런 면에서 '모두

의 주방'은 힐링 예능이다. 지난 24일 방송된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모두의 주방'에는 가수 거미, 배우 이엘리아 등이 새롭게 합류해 맛있는 한 끼를 완성했다. '모두의 주방'은 혼자 와서 모든 것을 처음 같이 해보는 사람들 간의 예측불허 소셜다이너미즘 주제로 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 지난해 12월 파일럿 방송 후 호평을 받으며 정규편성을 확정 지은 바 있다. 현재 매주 일요일 오후를 책임지는 힐링 예능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날 역시 힐링 예능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엘리아는 광희도 반한 미모부터 다정다감한 매력울 발산

했다. 이엘리아와 광희는 서로의 요리를 도와주며 핑크빛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거미는 "주방에서 연애한다"면서 두 사람의 묘한 '썸'을 응원했다. 특히 거미는 '모두의 주방'을 꽤 재웠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고, 아심차게 준비해 온 해산물로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보여주기도 한 것. 거미는 김밥 만들기 서툰 배우 김용건과 사쿠라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따뜻한 면모까지 드러냈다. 사쿠라 역시 초반과 달리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국말도 점점 늘어났고, 먼저 다가갈 정도로 모습까지 드러났다. 이처럼 '모두의 주방' 출연진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따뜻한 웃음이 터지게 만들었다. 어느 누구

하나 더 돋보이길 바라지도 않았기에 가능했다. 요리하면서 배려하는 모습은 훈훈함 그 자체였다. 때문에 한 상이 차려진 후 더 맛있게, 더 화기애애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모두의 주방'은 예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출연진의 등장이 흥미롭다. 어색할 수 있지만, 뻘뻘한 조화가 나오는 재미와 감동은 그야말로 일품. 게다가 강호동, 사쿠라 등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이창광, 광희 등은 반전 매력을 보여주며 '모두의 주방'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또 누가 '모두의 주방'에 출연할지, 어떤 새로운 만남과 호흡이 완성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모두의 주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다.

연기력X스토리로 승부 본 '자백'



'자백'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23일 첫 방송된 tvN 새 주말드라마 '자백' (극본 임희철/연출 김철규/윤현기)은 한번 편성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법의 테두리에 가려

진 진실을 쫓는 자들을 그린 법정 수사물. 4.569%(이하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로 막을 올렸고, 2회 만에 5% 돌파를 해냈다. 이는 전작 '로맨스는 별책부록' 보다 빠른 상승세다. 1회와 2회에서는 변호사 최도현(준호 분)이 5년 전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한종구(류경수 분)가 당시 '양해한 살인사건'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동시에 한종구가 5년 후 일어난 '김선희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졌다. 전직 은사경찰서 강력팀장 기준호(유재명 분)는 이 모든 사실을 최도현에게 알려주며 한종구를 감옥에 넣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한종구가 이번 사건의 진범이 아

니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 여기에 '자백'이 내세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됐다. 한종구는 이미 5년 전 살인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인물. 이에 그가 자신의 5년 전 살인을 자백한다고 해서 해당 사건으로 감옥에 갈 일은 없다. 하지만 5년 전 진범을 자신도 모르게 풀어준 최도현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최도현은 한종구가 '양해한 살인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확신을 갖고 재판에서 5년 전 은사경찰서에서 양해한 씨를 살해했습니까?'라고 묻는 초강수를 던졌다. 사실 '자백'은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여타 tvN 드라마에 비해 '한 번 캐스팅'이라는 평을 들었다. 현민 박신혜, 이나영 이종석을 잇는 tvN 주말드라마 주연 라인업이 준호 유재명, 두 사람 모두 연기력

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지만 메인 주인공으로 나선 준호는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 아이돌 출신. 게다가 드라마 주연을 맡은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우려는 완벽히 씻겨나갔다. 준호가 연기하는 최도현은 살인죄로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둔 변호사 아들. 그는 감옥에 들어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와 관계는 물론이고 5년 전과 5년 후 얽힌 사건을 두고 고민하는 변호사의 모습까지 몸담고 있게 그려냈다. 장르물로 이미 성공한 경험에 있는 유재명도 경찰 역할에 완벽히 녹아들었다는 평이다. 비주얼 역시 완벽한 경찰이었다. 연기력,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스토리, 추측하는 맛까지 모두 갖췄다. 일찍이 호평받고 있는 '자백'이 앞으로 그려낼 이야기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음력 2월 20일)

- ▶**띠별** 독단적인 일처리는 화를 부른다. 1, 3, 5, 9월생은 동료와 함께 의논하는 자세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명심할 것. 기혼은 직장에 충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이 허사.
- ▶**띠별** 1, 2, 7, 8월생은 고집이 센 것이 홀이나 직장인은 직장에 충실하고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기 때문에 주위의 찬사를 들을 때가 많다. 남성은 매사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니 미루어 두었던 일도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듯. 북, 동쪽 길.
- ▶**띠별** 들에 있는 토끼 잡으려다가 집도끼마저 놓칠 염려된다. 1, 4, 6, 7월생은 좀 더 가정에 신경 써야 할 때임. 특히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집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나, 사, 흥 성씨는 나, 나, 나 성씨를 가까이 하지 않는게 좋을 듯.
- ▶**띠별** 부부 사이에 눈치 싸움만 하지 말라. 어느 누구든 먼저 술선수범해서 자기 심정을 털어 놓으면 상대방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2, 4, 7, 8월생은 대화하는 습관을 붙이는데 좋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요구하는 조건은 가능한 들어주도록.
- ▶**띠별** 자기 꿈은 이상이 깨져 버린다는 생각은 위험천만. 1, 2, 5, 6월생은 벌써부터 성급하게 자기를 괴롭히지 말 것. 사업은 차차 정상의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가, 나, 셋 성씨는 하면 된다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할 필요함.
- ▶**띠별** 1, 5, 8, 10월생 서, 북쪽에서 금전이 들어오는 날이다. 이제부터 차차로 운이 열리니 생활과 걱정은 묻어 두어도 좋을 듯. 그러나 자만에 빠져 하는 일에 게으르면 모든 것이 도로 아이타발되는 격.
- ▶**띠별** 기본 내키는대로 행하다 9, 10, 11, 12월생은 가정과 직장에서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매사 성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도록 노력하는게 좋다. 가, 나, 흥 성씨는 가정에 놀랄 일 생길 듯. 자식에게 신경 씀이 좋을 듯.
- ▶**띠별** 2, 4, 7, 12월생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 짝 잃은 철새처럼 고독하구나. 이럴 때일수록 달콤한 사탕발림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유혹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절대 고독은 오히려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걸 명심할 것.
- ▶**띠별** 남, 동쪽에 귀인이 있다. 2, 7, 9, 12월생은 사는 곳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행운이 있다. 직장인은 출장 시 회색이나 은빛이 나는 물건을 소지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듯. 나, 오, 자 성씨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분을 다하라.
- ▶**띠별** 말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하고 의견을 상대에게 요구하도록. 3, 4, 10, 11월생은 순간 순간 전달하는 언어에 차가움이 섞여있어 매사 순해를 보기 십상. 표정관리에 신경 쓸 것. 나, 사, 흥 성씨는 유연성을 잃지 말라.
- ▶**띠별** 2, 4, 6, 9월생은 매사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길함을 알 것. 들뜨지 말고 본인에게 진정 필요한 점을 보완하는데 신경 써라. 휴식은 적당히 취해야 건강에도 좋다. 지나치면 일을 시작함에 무리가 따를 듯. 3, 4, 5월생 검정색은 피할 것.
- ▶**띠별** 봄철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다. 봄이 지나갔고 꽃피는 때가 없는 건 아니듯 2, 6, 9, 10월생의 꽃은 좀 늦게 피을 알라. 나, 사, 흥 성씨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법이다. 궁지에 몰렸다고 상대를 괴롭히지 말라. 참는 것이